

하나의 글, 하나의 문장

글쓰기교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이제 4학기째다. 그동안 학부생들이 써 온 글들을 같이 읽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헤맸다. 사회학이 전공인 터라 익숙한 사회과학 글을 보면 반갑고, 미학, 예술 같은 생소한 분야의 글을 읽으면 난감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분야에 관계없이 좋은 글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원칙을 주지시키고 잘 지키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상담 중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 문장으로 말해봐.” 몇 장씩 공들여 써 온 글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니.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닌가? 그렇다. 폭력이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 모든 창조적 작업에는 폭력이 수반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글이 담아내고자 하는 대상의 모든 측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다. 중언부언이 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부분은 정으로 돌을 쪼개내듯 쳐내야 한다. 그러나 나의 기습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당황하며 또 다시 긴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일쑤다. 내 경우에는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개요를 다시 잡도록 하는 과정이 상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나의 글에는, 심지어 한 권의 책에는 단 하나의 핵심 주장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대담하고 간명한 하나의 주장,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담긴 글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한다. 수천 쪽에 달하는 『자본론』을 한 문장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아마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들을 스스로 산출하고 성숙시킨다’ 정도가 될 것이다. 책에 등장하는 무수한 개념, 수식, 역사적 사례들은 이 한 문장을 입증하기 위해 존재 한다. 역사사회학에서 기념비적인 명작으로 꼽히는 배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은 또 어떤가? 한 문장으로 한다면 ‘농업의 상업화 과정에서 각 사회

● ● ●
최민석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계급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한 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상이한 경로를 갖게 된다'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다는 『총, 균, 쇠』도 '지리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문명의 발전 정도가 상이하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 한 마디를 하기 위해, 그 한 문장에 무게를 싣기 위해 증거와 논리가 동원되고 논증이 시도된다. 그리고 그 성공 정도에 따라 글의 수준이 판가름 난다.

학술적 주장을 담은 논술형 리포트나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면 이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사전에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노트에 적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흐름과 우선순위를 감안해 나열해 보자. 그것을 다듬은 것이 글의 개요가 될 것이다. 물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개요가 변화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핵심 주장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을 갖고 시작한다면 자신의 글에 대한 문제점도 더 빨리,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평은 어떨까? 내 식대로 말한다면 서평이란 주어진 책에서 하나의 핵심 문장을 뽑아내고 그것이 증거와 논리에 의해 성공적으로 지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글이다. 핵심 주장이 적절한지, 증거와 해석상의 오류가 없는지, 논리적으로 무리 없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뜯어보고 거기에 개입하여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서평이다. 물론 서평 자체도 해당 텍스트에 대해 한, 두 문장으로 집약된 서평자의 주장이 핵심 골조가 되어야 한다.

예술작품에 대한 평론도 마찬가지다. 영화가 됐건, 소설이 됐건 좋은 예술 작품에는 삶에 대한 통찰이 있고,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창작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읽어내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평론의 중심축이다. 한편으로는 평론자가 그것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것을, 적절히 해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가 적실한지, 예술양식의 문법 속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논해야 한다.

결국 서평과 감상평을 잘 쓰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나 작품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보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 양식 또는 예술적 양식으로 지지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된 메시지 자체에서, 또는 그것이 지지되는 과정에서 어색함이 있다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해 비판과 비평을 펴나가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이해와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서평과 감상평을 쓰는 본연의 목적일 것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어느 고대 필사본의 한 구절을 옮바르게

관독해 내는 것에 자기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학문을 단념”이라고 했다. 학문이란, 글쓰기란 그런 것이다. 하나의 문장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글쓰기다. 물론 리포트 하나 쓰는 데 “자기 영혼의 운명”을 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말이다.

하나의 글을 쓰려면 하나의 문장을 만들라. 그것이 모든 것이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독창적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라. 그 한 문장만의 세계를 만들라. 좋은 글은 그렇게 소박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